

김별아의 문학과 삶



삶의 맛, 꿈의 맛

길목에 들어서는 순간 이국적인 향신료 냄새가 코를 찌른다. 동남아시아에서 즐겨먹는 고수부터 인도 음식에서 빠질 수 없는 마살라까지, 전국 최초의 외국인 주민 센터와 다문화 작은 도서관을 구경할 겸 안산으로 짧은 나들이를 꾸민 길이었다. 그 참에 겸사겸사 “탈린트 김태희를 닮은 아가씨가 소를 몰고 한가인을 닮은 여자가 밭을 간다”는 미녀의 나라로 알려진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 식당 ‘사마리칸트’에서 색다른 음식을 맛보기로 했다.

몇 해 전 캐나다에 체류하는 동안 한국계 이민자들로부터 “타국에서 산다는 것은 몸도 마음도 점점 가난해지는 일”이라는 말을 종종 들곤 했다. 남다른 삶과 꿈을 좇아 외국을 떠나왔지만 세상 어디에서도 삶을 모국과, 꿈을 이루는 일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어쩌면 더 큰 고난에 맞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만 유지할 수 있는 타향살이에서 집집이 가난해져가는 몸과 마음을 위로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입맛에 맞는 익숙한 고국의 음식을 먹는 것이었다. 여태껏 허기를 달래고 끼니를 때우는 수준으로 밥과 반찬을 만들어 왔던 내가 처음으로 ‘요리’에 관심을 갖기 시

작한 것도 캐나다 생활을 통째서였다.

한식요리를 위한 양념이며, 재료를 준비하기 힘들고, 한국 슈퍼마켓의 식재료 가격은 현지 식료품점에 비해 1.5배 정도로 비쌌지만 그럴수록 예전에 먹었던 음식이 그리웠다. 한인타운에 다양한 한식당들이 있지만 맛이나 가격 면에서 몸과 마음이 가난한 체류자를 만족시키기 힘들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고, 그때부터 팔을 걷어붙이고 신물질 개발에 몰두하는 연구자의 자세로 각종 요리 사이트와 블로그를 전전하며 요리 독학을 시작했다. 초야에 묻힌 요리 고수들의 화학 공식 맞잖은 정교한 레시피도 도움이 되었지만, 무엇보다 요리는 풍부한 상상력을 요하는 일이었다.

더하고 빼고 섞고 뒤집는 가운데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기억 속에 자리한 바로 ‘그 맛’을 접시에 담기 위해 부엌을 쑥대밭으로 만들곤 했다. 배추김치와 파김치, 간장계장과 감자탕, 약삭과 육개장을 거쳐 마침내 수산물 시장에서 ‘구경’했던 소금에 짠 빨갛게 색이 변한 오징어까지 기억해내어 냉동 오징어를 절었다가 젓갈을 담그기에 이르렀다.

깃 지은 따끈한 밥에 짭짤한 오징어 젓갈

한 절음을 올려 입안에 넣었을 때, 나는 기어코 먹고 싶겠노라고 이렇게 발버둥치는 스스로의 의지에 콧등이 시큰하기까지 하였다.

우즈베키스탄 식당 ‘사마리칸트’에는 김태희와 한가인이 없었지만 만나면 타국에서 고단한 삶을 꾸려가는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넉넉히 달래주는 우즈베키스탄 음식들이었다. 나처럼 ‘글로벌 푸드타운’을 찾는 한국인도 있지만 인근 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주요 고객하기에 음식 값 역시 매우 저렴하다.

패스트푸드 빵 속에 다진 양고기를 듬뿍 넣은 ‘빵 속에 고기’가 한 개에 2000원, 양고기와 쇠고기 꼬치 하나가 한 개에 3000원, 샐러드 류는 각 2000원씩, 유창한 한국어 실력을 자랑하는 사장님이 추천한 양갈비 감자 바베큐가 1만 원으로 가장 비싸다. 양고기 덩어리를 삶은 육수에 감자, 당근, 양파, 양배추, 그리고 빨간 순무를 넣어 끓인 보르스치 스프는 시각적으로 쉽게 적응하기 힘든 분홍색이지만 구수한 곡물 맛이 해장으로 일품이다.

모닥불의 향과 맛을 연상시키는 요리들을 맛보는 동안 1번부터 9번까지 도수대로 이름을 매긴 러시아 맥주가 하나둘 빈병으로

쏟아졌다. 발틱 해의 술이라는 뜻으로 ‘발찌까’라 불리는 그것을 중에서 6번의 흑맥주가 오늘의 술꾼들에게 최고 인기다. 좋은 사람들과 즐겁게 음식을 나눠먹노라면 어느덧 긴장이 풀려 경계의 벽이 허너진다.

알근하게 취한 채 ‘사마리칸트’를 나와 중국어, 네팔어, 방글라데시어,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등등이 마구 뒤섞여 들려오는 거리를 헤쳐 간다. 모국어로 글을 써서 밥을 벌여먹고 사는 작가의 귀에 낯선 언어들은 먼 바다의 물결처럼 아득하다.

삶과 꿈은 다양할수록 맛있다. 맛을 평가하는 데는 동정과 시혜가 없다. 편견과 배타성도 무의미하다. 다문화사회를 둘러싼 우려도 무시할 수 없지만, 꼭꼭 씹어 삼킨 양고기와 맥주는 이미 우리의 배 속에서 소화되어 가고 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을 변형해 토할 수 없으면 사이라고 해야 할까? 거기에서 산 목적인 열대과일을 품에 안고, 다른 말과 맛과 향이 넘실대는 거리에서 발걸음을 재촉한다. 2차는 짜조(베트남 만두)를 안주 삼아 사이공과 하노이 맥주를 마시러 베트남 식당으로! <소설가>

종교칼럼



방길튼 원불교 나주교당 교무

무덤다. 8월의 더위는 폭압적이다. 모든 생명을 목마르게 한다. 더울수록 푸른 숲이 그립다.

공상을 해 본다. 무등산 정상에서 큰 새를 타고 곳곳에 꽃씨를 뿌려 계절 따라 온 도시를 꽃밭으로 바꾸는 정원사의 꿈을 꾸어 보며, 아스팔트를 갈아엎어서 나무를 심는 상상도 해 본다. 우리의 도시는 자연과 단절된, 자연으로부터 격리된 환경이다. 도시는 인공의 도시이고 자연은 도시 밖의 생태로 여긴다. 그래서 주말이면 자연과 함께하기

시원한 녹음의 도시를 바라며

위해서 그 많은 사람이 도시 밖으로 나가 산천을 즐기는 것이리라.

인류의 문화 중에서 자연과 인공이 어우러진 것은 논이라 볼 수 있다. 논은 물을 담고 있는 작은 저수지이면서 버가 자라는 자연으로 논길을 걸으면 기분이 좋은 것은 이곳이 산소의 생산지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생태와 인공이 어우러진 도시는 불가능할까? 무위(無爲)와 유위가 어우러진 도시는 과연 불가능할까?

이제는 채우는 도시가 아니라 비우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 비어있는 평지에 숲을 가꾸자. 구도심의 주택을 구입하여 그곳을 비우는 허(虛)의 행정을 하자. 이 빈자리를 숲으로 바꾸어 이런 소공원을 골목으로 이어보자. 이 길은 추억의 거리로 바꾸고 기 작은 나무와 넉넉한 식물 심어 근대문화와 생태가 함께하는 공간으로 바꾸어 보자. 가능한 곳부터 전선을 지중화하여 가로수를 키워 녹색거리로 만들자. 그래서 시원한 녹음의 도시를 만들어 보자. 분명 허의 행정은 생태와 문화의 행정으로 당장은

비실용적이고 귀찮은 행정일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이다.

도시가 사람이 사는 생태의 환경이 되기 위해서는 비워야 한다. 도시는 인공과 생태가 어우러져서 사람이 살기 좋은 공간이 되어야 한다. 눈에 보지만 좋은 것이 아니라 냄새가 좋은 도시, 맛과 촉각을 깨우는 도시, 청량한 숲의 도시여야 된다.

도시를 자연이 배제된 도시에서 자연과 교류된 생태도시로 바꾸자. 그러기 위해서는 허의 행정이 요청된다. 자꾸 비우는 지혜가 필요하다. 가로수도 그냥 나무만 심을 것이 아니라 가로수가 공원이 되고 땅과 공존하도록 하며, 가로수를 예술작품화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철재담이나 담장이 넉넉 등을 심어 철재의 인공과 식물의 생태가 어우러지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연은 자연의 법칙이 있다. 천지는 우리에게 주아의 성실함을 보여주고 있고 무등산에 오르면 호연지기의 광대한 마음을 열어준다. 이처럼 자연의 법칙을 준칙으로 존

중하는 사회의기를 바라며 이런 자연의 준칙에 따라 행정이 진행되기를 바란다. 자연을 가까이하고 천지를 소중히 하자는 것은 바로 이런 천지의 준칙을 수용하자는 것이다. 천지가 온 만물을 다 수용하고 다 안아 주듯이 우리도 천지 같은 마음과 천지 같은 행정을 하자는 것이다.

원불교의 교조이신 소태산 박종빈 대종사는 천지의 도와 덕을 설교하셨다. 천지가 우리가 사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관계로 이 천지의 도가 운행되어 우리가 그 은덕을 입어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의 삶과 행정이 천지자연의 준칙을 선생님 모시듯이 하여 문명 속에 자연이 배어들어 서로 조화로 온 삶을 바라다. 즉 도시가 천지자연의 생태와 인공이 어우러지는 생태가 인공이고, 인공이 생태인 도시가 되기를 꿈꾸어 본다.

그런데에서 순천만을 보호하고 아끼기 위해 그 앞에 완충지대로 정일박람회장을 마련한 것은 순천시민들의 지혜요, 탁견이다. 자랑스럽다.

기고

국사(國史)는 국혼(國魂)이다



최수대 송원대 총장

일제식민지시대 상해 임시정부 2대 대통령을 역임한 국사학자인 박은식 선생님은 국사교육의 중요성을 강조 했다. 우리의 ‘국사를 보존하는 것은 국혼을 보존하는 것이다’라고 했고, 비록 나라를 잃었어도 국사를 잘 보존하고 가르치면 국혼을 살리어 독립할 것이라는 신념을 가졌다. 선생은 이런 신념하에 풍찬노숙 그 험한 독립운동의 와중에서도 틈틈이 국사책을 저술하시어 독립운동지침서를 비롯한 한국통사 등 많은 우리 역사책을 쓰고 국사교육에 노력했다. 지금 우리나라는 해방 후 사회, 경제적으로 많은 발전을 급속히 이룩했다. 그러나 우리 후속 세대들은 이러한 발전이 어떠한 어려움과 과정을 거쳐서 이룩되었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조사 통계들이 종종 발표되고 한다.

유명한 연예인들의 이름은 줄줄이 외워도 민족을 위해 희생한 많은 애국지사들의 이름이나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우리를 둘러싼 국가를 특히 일본의 독도 자국 영토와 주장, 위안부 문제 외면이라든지 고구려 역사를 중국 역사에 편입시키려는 중국의 동북공정 등 지구 상황은 우리 미래 세대들이 우리 역사를 잘 알아야 만하는 당위성을 말해 주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교육받은 세대들이나 중국의 동북공정에 의해 교육받은 세대들이 영토나 문화 관련 문제 등을 확대 제기할 때 우리 미래 세대들도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역사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독일이 2차 세계대전 때 유태인을 학살한 사실에 대하여 이스라엘의 국민들은 ‘용서한다. 그러나 잊지 않는다.’며 그 아픈 과거를 마음에 간직하며 확실 전범은 끝까지 찾아내어 처단하는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단재 신재호 선생의 말씀도 같은 의미라고 본다. 지나간 민족의 눈물 어린 피 어린 역사를 모르고 현재의 발전에 도취되어 과거사를 소홀히 하면 그 사회는 또 다시 고난의 역사를 당할 수 있는 것이다.

국사를 공부하다 보면 가슴 뭉클한 장면은 너무도 많다. 1932년 윤봉길 의사가 흉구 공원에서 터프티를 찾아내어 처단하는 사건이 떠오르는 날, 김구 선생에게 자기가 차고 있던 새 손목시계를 벗어 김구 선생께 드리고 자신은 김구 선생의 낡은 손목시계를 차고 떠나려는 모습을 생각해보면 가슴이 미어지는 심정을 느낀다. 또한 청산리 대첩을 승리로 이끈 민족의 영웅 김좌진 장군이 민주의 추은

겨울날 이념갈등으로 동족의 손에 무참하게 살해당한 쓸쓸한 죽음을 생각하면 우리 민족의 분열에 아쉬운 마음 한량일 없다. 의열단의 조선혁명선언을 만들어 무장투쟁을 지도하고 일제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신재호 선생의 만주에서의 옥사와 그를 자극정성으로 지원했던 부인 박자혜여사의 고난의 생활과 죽음을 생각하면 현재의 대한민국은 많은 애국열사들의 희생위에 영위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 못할 엄숙한 감정과 감사함을 느낀다.

이제 우리는 수처선로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민족 자주의 정신력을 강하게 길러야 하며 이는 올바른 국사교육위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국사교육이 시계열적인 연대 위주, 사건 위주, 시험 대비만 하는 교육이 되어서는 안된다.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하여 중요사건 당시의 상황 전개와 그 형편에서 우리 선조들이 대처했던 방법들을 냉철히 분석하고 검토해봄으로써 다시는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 토의와 토론, 가치관단 수업, 가치 명료화 수업 등을 통해 우리 역사 전개과정에서 자신을 희생한 선각자나 애국지사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민족 사랑의 마음을 길러야 할 것이다.

일인한 생각으로 음주운전을 했다가는 큰 화를 당할 수 있음을 각성하고 음주를 하면 차 운전대를 절대 잡지 않는다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모처럼의 가족과 연인들의 즐거운 휴가를 음주로 망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이영재·광주시 동구 학동

겨울날 이념갈등으로 동족의 손에 무참하게 살해당한 쓸쓸한 죽음을 생각하면 우리 민족의 분열에 아쉬운 마음 한량일 없다. 의열단의 조선혁명선언을 만들어 무장투쟁을 지도하고 일제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신재호 선생의 만주에서의 옥사와 그를 자극정성으로 지원했던 부인 박자혜여사의 고난의 생활과 죽음을 생각하면 현재의 대한민국은 많은 애국열사들의 희생위에 영위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 못할 엄숙한 감정과 감사함을 느낀다.

이제 우리는 수처선로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민족 자주의 정신력을 강하게 길러야 하며 이는 올바른 국사교육위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국사교육이 시계열적인 연대 위주, 사건 위주, 시험 대비만 하는 교육이 되어서는 안된다.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하여 중요사건 당시의 상황 전개와 그 형편에서 우리 선조들이 대처했던 방법들을 냉철히 분석하고 검토해봄으로써 다시는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 토의와 토론, 가치관단 수업, 가치 명료화 수업 등을 통해 우리 역사 전개과정에서 자신을 희생한 선각자나 애국지사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민족 사랑의 마음을 길러야 할 것이다.

일인한 생각으로 음주운전을 했다가는 큰 화를 당할 수 있음을 각성하고 음주를 하면 차 운전대를 절대 잡지 않는다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모처럼의 가족과 연인들의 즐거운 휴가를 음주로 망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이영재·광주시 동구 학동

社說

남북관계 ‘정상화’ 당국자간 회담이 먼저다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취임 후 첫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관계에 있어 평화와 상생을 제시했다. 전날 개성공단 실무회담이 극적 타결된데 맞춰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 추석을 전후로 한 이산가족상봉과 DMZ(비무장지대)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공식 제의한 것이다.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과거 직시를 통한 한·일 공영의 미래에 초점을 맞췄다. 박 대통령은 자극적인 용어나 표현을 자제한 채 일본의 과거사 직시, 과거 상처 치유를 위한 일본의 용기있는 리더십을 주문했다. 일본의 양식과 올바른 역사인식을 절제된 방식으로 ‘안배’한 것이다.

이와 함께 하반기 국정운영의 핵심 키워드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제시하며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의 경축사 메시지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통일에 대한 의지, 일본의 전향적 자세 촉구, 현재 우리가 당면한 경제과제를 소상히 피력했다는 점에서 베트남 식당으로!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가.

하지만, 이산가족상봉과 DMZ(비무장지대) 세계평화공원 조성문제는 북한이 과연 수용하느냐의 여부가 관건이다. 이를 위해서 남북 당국자간 대화 재개로 긴장관계를 해소하는 게 급선무다. 남북이산가족 상봉도 적십자 회담을 먼저 여는 것이 순서다.

한·일관계에 있어서도 일본의 자제 전환이 전제가 되겠으나 과거사와 독도 문제 등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되, 동북아 정세와 관련, 협력할 것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일본은 더 이상 역사적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한국 정부의 요구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한편으로 이번 경축사에서 오점으로 남는 것은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하면서도 현재 경제권 정국에 대해 해법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은 국정원 사태로 여야간 정쟁이 계속되고, 촛불시위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직시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광주시교육청 ‘꿈수’ 고교배정 강행할 건가

올해 초 무더기 강제배정으로 반발을 샀던 고교배정방식이 또다시 학생 선택권을 무시한 채 확정돼 큰 후유증이 우려된다. 교육전문가들이 지적했던 ‘11지방 꿈수배정’을 강행하겠다는 의지에서 내년 고교배정을 둘러싸고, 큰 파란을 예고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이 14일 공고한 2014학년도 고교 신입생 전형요강에 따르면 지역예에 관계없이 고교를 선택할 수 있는 선지역에서 정원의 40%를 선발하고, 출신 중학교를 기준으로 한 배정가능 고교에서 선택하는 후지원에서 60%를 배정한다고 한다. 선지역에서 2개 학교를 선택하는 것은 지난해와 같지만 후지원 선택 학교 수는 지난해 5개교에서 9개교로 확대됐다.

교육청은 성적등급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줄였다고는 하나 일괄배정 방식은 지난해와 같고 후순위의 선택 우선순위를 낮추고 있는 것은 배정시스템을 강행한다면 오만에 다름없다.

시교육청은 지금이라도 문제를 바로 잡아야한다. 꿈수배정이라는 오명을 씻을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평준화를 없애 강제배정에 따른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또 후지원에 선택학교 폭을 넓혔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는 강제배정의 책임 학생·학부모에 떠넘기는 ‘꿈수’에 불과하다. 후지원은 본인이 원하는 학교가보다 어쩔 수 없이 가는 학교여서 선택 학교 수가 늘었다는 점만으로 선택폭을 넓혔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배정 가능 고교가 적은 곳의 중학교 출신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동안 입문과 교육전문가들이 11개교를 선택하는 문제가 ‘꿈수’라고 질타하고 이의 개선을 촉구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고교 배정의 가장 큰 기준은 학생 중심의 선택권이다. 이를 무시하고 부차적이 확인하 보이는 배정시스템을 강행한다면 오만에 다름없다. 시교육청은 지금이라도 문제를 바로 잡아야한다. 꿈수배정이라는 오명을 씻을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평준화를 없애 강제배정에 따른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또 후지원에 선택학교 폭을 넓혔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는 강제배정의 책임 학생·학부모에 떠넘기는 ‘꿈수’에 불과하다. 후지원은 본인이 원하는 학교가보다 어쩔 수 없이 가는 학교여서 선택 학교 수가 늘었다는 점만으로 선택폭을 넓혔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배정 가능 고교가 적은 곳의 중학교 출신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동안 입문과 교육전문가들이 11개교를 선택하는 문제가 ‘꿈수’라고 질타하고 이의 개선을 촉구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고교 배정의 가장 큰 기준은 학생 중심의 선택권이다. 이를 무시하고 부차적이 확인하 보이는 배정시스템을 강행한다면 오만에 다름없다. 시교육청은 지금이라도 문제를 바로 잡아야한다. 꿈수배정이라는 오명을 씻을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평준화를 없애 강제배정에 따른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또 후지원에 선택학교 폭을 넓혔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는 강제배정의 책임 학생·학부모에 떠넘기는 ‘꿈수’에 불과하다. 후지원은 본인이 원하는 학교가보다 어쩔 수 없이 가는 학교여서 선택 학교 수가 늘었다는 점만으로 선택폭을 넓혔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배정 가능 고교가 적은 곳의 중학교 출신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동안 입문과 교육전문가들이 11개교를 선택하는 문제가 ‘꿈수’라고 질타하고 이의 개선을 촉구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배정의 책임 학생·학부모에 떠넘기는 ‘꿈수’에 불과하다.

후지원은 본인이 원하는 학교가보다 어쩔 수 없이 가는 학교여서 선택 학교 수가 늘었다는 점만으로 선택폭을 넓혔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배정 가능 고교가 적은 곳의 중학교 출신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동안 입문과 교육전문가들이 11개교를 선택하는 문제가 ‘꿈수’라고 질타하고 이의 개선을 촉구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고교 배정의 가장 큰 기준은 학생 중심의 선택권이다. 이를 무시하고 부차적이 확인하 보이는 배정시스템을 강행한다면 오만에 다름없다.

시교육청은 지금이라도 문제를 바로 잡아야한다. 꿈수배정이라는 오명을 씻을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평준화를 없애 강제배정에 따른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또 후지원에 선택학교 폭을 넓혔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는 강제배정의 책임 학생·학부모에 떠넘기는 ‘꿈수’에 불과하다. 후지원은 본인이 원하는 학교가보다 어쩔 수 없이 가는 학교여서 선택 학교 수가 늘었다는 점만으로 선택폭을 넓혔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배정 가능 고교가 적은 곳의 중학교 출신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동안 입문과 교육전문가들이 11개교를 선택하는 문제가 ‘꿈수’라고 질타하고 이의 개선을 촉구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無等鼓

‘복권의 경제학’을 이야기할 때 흔히 사용하는 단어가 ‘기대값’이다. 기대값이란 복권을 구입한 사람이 받는 당첨금의 평균값이다. 당첨금 총액을 복권 판매량으로 나눈 것으로, 쉽게 말해 복권을 산 사람들이 당첨금을 얼마나 되돌려 받느냐를 나타낸 수치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복권의 기대값은 종류에 따라 50.0~64.8%로 다양하다. 가장 인기있는 로또의 기대값이 50%로 가장 낮다. 즉 1만원 어치의 로또복권을 살 경우 5000원만 당첨금으로 지급된다는 얘기다. 세금(22~33%)을 포함하면 복권 구입자가 보는 손해는 더 크다.

사행산업의 대표 주자로 꼽히는 경마의 기대값은 73%, 경륜·경정은 72%, 카지노는 82~83%로 복권보다 오히려 투자 대비 손해 볼 확률이 낮다. 복권이 카지노나 경마보다 사행성이 높는데도 정부가 나서 공공연하게 복권의 판매를 권장하는 것은 ‘소리없는 세금’처럼 저항감없이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조원봉 청와대 경제수석의 인용으로 유명한 진 장 바티스트 콜베르의 ‘거위털 뽑기론’도 결국 조세 저항을 최대한 줄이면서 세금을 걷는 기술이다.

콜베르는 17세기 ‘태양왕’ 루이 14세 아래서 18년간 재상을 지내면서 간재제정을 통해 프랑스를 유럽 최강국으로 키워냈다. 그는 바리자한 조세 원칙은 “거위 꼬리를 지르지 않게 최대한 많은 깃털을 뽑는 것”이라고 말했다. 깃털(세금)을 많이 얻으려고 거위(경제 상황)를 함부로 다루면 거위가 소리를 지르는 만큼 세수 확보를 위해 급격히 세율을 높이거나 세목을 늘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정부의 소모품은 거위털 뽑기 조세쟁정이 질타를 받고 있다. 부자증세 대신 다수에게 고통없이 세금을 걷고 싶다면 차라리 복권을 활성화하는 것이 더 솔직한 모습이 아닐까 싶다. 2년 전 발매해 대박을 터뜨린 연금복권도 정부의 작품이 아니던가.

정부가 소모품은 거위털 뽑기 조세쟁정이 질타를 받고 있다. 부자증세 대신 다수에게 고통없이 세금을 걷고 싶다면 차라리 복권을 활성화하는 것이 더 솔직한 모습이 아닐까 싶다. 2년 전 발매해 대박을 터뜨린 연금복권도 정부의 작품이 아니던가.

/장필수 사회2팀장 bungy@kwangju.co.kr

휴가철 풀어진 마음에 음주운전 절대 금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에서 음주운전을 집중 단속한 결과 7월 한 달 2만6000여건이 적발됐다. 이렇듯 휴가지에서 마음이 풀어지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도 줄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휴가라고 해서 음주를 용인할 수는 없다. 관광객들 스스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새롭게 하고 준법의식을 가져야 한다. 음주에 따른 여러 제약이 따를 수 있

지만 음주운전만은 자제해야 한다.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가장 많은 요일은 토요일이고, 이어 금요일, 수요일 순이었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10시와 다음날 오전 1시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낮시간대 음주운전 적발도 적지 않았다.

이처럼 음주운전이 급증한 것은 휴가철을 맞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관광지에서 들뜬 기분

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음주운전은 범죄로 인식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음주 의심 차량을 신고하는 시민의식도 높아졌다. 관광지에서는 음주가 많고, 자칫 운전대를 잡기도 쉽다.

그러나 관광지나 휴가라고 해서 음주에 관대할 수는 없다. 운전자는 술을 마시지 말고, 부득이하게 술을 마셨을 경우에는 비음주자에게 차를 맡기거나 대리운전을 이용해야 할 것이다. 대리운전비 아끼려고 음주 상태로 치를 잡았다가는 대리운전비의 수십 배에 달하

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 경찰은 휴가철이 끝나는 이달 말까지 매주 금·토요일 밤 전국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하고 휴양지, 유흥가 등 음주운전 취약지에서는 주·야간 관계없이 상시 단속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한다.

일인한 생각으로 음주운전을 했다가는 큰 화를 당할 수 있음을 각성하고 음주를 하면 차 운전대를 절대 잡지 않는다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모처럼의 가족과 연인들의 즐거운 휴가를 음주로 망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이영재·광주시 동구 학동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滄樂 편집국장 奇賢鎔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문화생활부 2200-661 문화체육부 2200-621 정 치 부 2200-612 (대표 FAX 222-4918)	경 영 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광교미케팅국 2200-621 (F A X 227-9600) 디 지 인 실 2200-536 사 회 부 2200-616 (대표 FAX 222-4267)	문 화 사업국 2200-541 (F A X 222-0195) 독 자 서 비 스 국 2200-551 (F A X 227-9500) 서 울 지 사 02-773-9331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